



A mean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World Leadership Community in discernment and every member of the World Community

HORIZONS



Horizons

CLC, 프란치스코 교황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반포 10주년 기념

186호, 2025년 11월

원문 : 영어

인사

2026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AL)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전 세계 CLC 공동체와 그 가족들을 함께 초대합니다. 가정생활의 어려움과 기쁨에서 영감을 받고, 이냐시오 영성과 가정을 사도적 우선순위로 삼는 CLC의 여정을 통해 힘을 얻은 우리는, 세상에 열린 가정이 되어 동반하며 함께 걸어가라는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으로, 전 세계 CLC 가족을 위한 사랑으로 준비한 이 문서를 공유하며, 여러분께서 2026년 3월 세계 CLC의 날을 새로운 기쁨과 창의, 그리고 희망으로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2016년, 두 차례의 가정 사목에 관한 시노드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에 「**사랑의 기쁨**」 (**Amoris Laetitia**, **AL**) 을 선물하셨습니다. 이는 가정의 아름다움과 어려움을 모두 인식하며, 가정 생활을 동반하고 식별하며 통합하도록 초대하는 진심 어린 권고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 세포이며, 사랑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심을 내려놓고, 한계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렇게 상기시키십니다.

“완벽하게 형성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정은 없습니다.” (AL 325)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단순히 성찰하는 것을 넘어 응답해야 할 때에 서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들이 '보살핌 받고 있다', '지지받고 있다', '영적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동반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가족'을 이해하기

'집'과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울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함과 소속감을 떠올리게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결핍이나 상실의 복잡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AL 32). 누구나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집'이라는 감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족일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만들어온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기쁨과 갈등, 사랑과 긴장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족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전통적인 가족,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위탁가정과 입양가정,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친구들까지 — 그 모습은 제 각각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출발점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AL 53).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며, 상대의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Deus Caritas Est 1, 2). 사랑은 인내와 용서 속에서, 그리고 매일 서로를 위해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작은 결심 속에서 자라납니다. 가족은 우리가 - 완벽하지 않더라도 -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AL 325). 이런 사랑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AL 323). 그렇게 주고받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일치로 엮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잇는 친교의 모습입니다. (Familiaris Consortio 18)

성경 속의 가족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갈등이 많지만, 동시에 은총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카인과 아벨(창세기 4장) 이야기에서부터 구원 역사 속의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까지, 가족의 여정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며 결국 어린양의 혼인잔치(요한계시록 21:2, 9)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3:34-35)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 속에 존재합니다 — 받은 사랑, 농친 사랑, 그리고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방식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형성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조용한 행동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사랑은 '배우는' 것이기보다 '답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1요한 4:16)

성찰

- 이 사랑의 비전은 내 삶의 경험과 어떤 부분에서 맞닿아 있습니까?
- 복잡하고 어지러운 일상 속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세계 가정 만남(the International Family Encounter: IFE) 참가 가정들의 나눔

2017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라”라는 주제로 **제 1회 세계 가정 만남(the First International Family Encounter: IFE)**이 개최되었으며, 평신도 이냐시오 영성의 관점에서 가정생활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요청한 가정 사목에 대한 새로운 접근, 즉 깊이 경청하고, 다정하게 동반하며,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곳에도 용감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요청에 응답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만남과 용기의 공간이 되어, 평범한 가정들이 신앙, 사랑,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나눔을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의 소명은 저희 집을 성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정은 무엇보다도 세상과의 교류의 장소이며, 예상치 못한 일이나 다른 모든 것에 열린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의 경험들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곳입니다.” - IFE 참가자, *Véronique (CLC 프랑스)의 나눔*

가정생활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모두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장인처럼 세심하게 친밀한 유대감을 엮어가지만, 동시에 다른 가정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내면에만 머무르면 가난해질 위험이 있으며, 성장할 기회와 세상에 우리의 고유한 은사를 나눌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기여하고, 다른 가정들과 동행하며, 만남을 통해 자신이 변화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족 안의 사랑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지쳐 쓰러진 곳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생활에는 휴식과 돌봄, 서두르지 않는 함께하는 시간과 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놀이를 선택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단순히 함께 있는 것 — 이러한 거룩한 쉼의 순간들이 사랑을 진정으로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성찰

- 우리의 가정은 세상에 열려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우리는 서로 휴식하고, 경청하며,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CLC 안에서 가족의 사도적 우선순위

레바논에서 열린 세계 총회에서 CLC는 가족이 사도적 우선순위의 하나임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족이란 식사를 같이 하고, 희노애락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FC 21; 카리타스 베리타테 44)

“CLC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족에게 행하는 사목적 첫 보살핌은 이냐시오 영성의 선물을 제공하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사랑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IFE, 2017 - 프로그레시오 N73) 이냐시오 영성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소명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가정은 그들의 다양성 안에서 사랑을 키워가며, 서로에 대한 배려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스런 장소입니다.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는 따뜻함과 열린 마음으로 여러 가족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문제가 무엇인지 직시하도록 도와주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들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아미앵 세계 총회에서 선언한 말이 생각납니다; “가족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은 - 어떤 형태이든 - 생명과 믿음을 나누고 찬양하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족 간의 친밀함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며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AL 67)

이에 대한 방편으로, CLC 세계 공동체들은 가정 생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여러 경험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IFE에서 나온 여러 사례들입니다.

- 가족의 시계 (스페인 CLC) - 부부와 가족들의 재결합, 리듬의 조화 그리고 그들 계획의 갱신
- 생활의 시계(스페인 CLC) - 나이 든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위한 워크샵
- 사계절 (스페인 CLC) -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재활을 위한 원조
- 듀오폴리스 (스페인 CLC) - 부부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임
- 자녀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콜롬비아 CLC) - 신앙과 기도를 전할 수 있는 가이드
- 가족과 의식성찰 하기(미국 CLC) - 기도와 가정 생활의 의식성찰 소개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적이고 생기 있는 여러 사례들이 있으며, 여러분의 사례도 환영하오니 아래의 양식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부모들, 조부모들 또는 현명한 노인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은 공동체와 친구와의 우정을 통해 신앙을 씨앗을 얻었습니다. CLC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고 사랑의 샘물을 같이 마시며, 동료들과 함께하는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증언이 차세대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길 갈망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가족을 위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길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성찰

- 치유와 포용 그리고 가족들의 신성한 여정을 확인해나가는 길에서 나는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까?

가정의 매 순간, 감사를 실천하기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과 전 세계 CLC의 가족 동반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우리는 매 순간, 심지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라는 초대에 응답합니다.

‘가족의 시계(the Family Clock)’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모든 것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교만, 원망, 혹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마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감사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받은 사랑이 다시 흘러가게 하며,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리를 뿌리내리게 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는 작은 순간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숨 하나, 고요한 쉼의 시간, 함께 나눈 미소, 소박한 식사 한 끼.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축하하며, 받아들이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사랑이 자유롭고 겸손하며 자비롭게 흐르도록 하여, 혼란과 고통,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지키며... 인생의 위기와 혼란, 어두운 시기들이 가져오는 그 모든 것들조차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여 너그러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겸손하고 자비로우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찰

- 우리 가정의 어떤 순간들이 내가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까?
-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2026 세계 CLC의 날

올해, 우리는 하나의 세계 CLC 공동체로서 두 가지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활동을 통해 2026 세계 CLC의 날을 함께 축하하도록 모든 회원들을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활동, 다른 하나는 함께하는 활동으로, 두가지 활동 모두 우리의 일상과 관계 안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나시안 가족으로서 성찰을 위한 멈춤 (개인/가족 기도)

- 우리 삶 안에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합니다.
- 최근에 가족과 함께했던 한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가는 이들, 가까이 있는 이들, 혹은 마음으로 연결된 이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기쁨, 사랑, 성장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던 상황이나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
- 희망을 품고 가족이 함께 하는 감사의 의식을 함께 계획해 봅니다.
 - 함께 식사하기, 산책 · 피크닉 가기, 함께 미사에 참여하기 등
- 원한다면 감사했던 순간들을 적어 가족의 감사 상자나 감사 노트에 남겨보기 바랍니다.

감사 나눔의 원(Circle) (지역 및 전국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유 체험)

- 각자 가족 안에서 경험한 은총 또는 사랑의 순간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이나 사진을 준비합니다.
- 원을 이루어 둘러앉아,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그 순간을 통해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는지 나눕니다.
- 각자의 나눔 후에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떼제 성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렵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소리높여 찬양하여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네.”*

[항상 주님께 In the Lord 떼제 Taize]

[https://www.youtube.com/watch?v=ISLqqwRT_Mc&list=RDISLqqwRT_Mc&start_radio=1]

- 나눔을 마무리하며 가족 또는 가족과 같은 이들에게 감사, 사랑, 혹은 용서를 담은 짧은 편지나 기도문,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원한다면, 준비한 물건의 사진이나 편지에서 한 문장을 다음과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SNS 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 **#SacredFamilyMoments**
- **#cvxclc**

자료제출, 문의 또는 추가 자료 문의: 이메일: exsec@cvx-clc.net

웹사이트: Family – CVX : <https://cvx-clc.net/en/what-we-do/family/>

- María Carolina Sánchez Silva
- Luz Stella Rodríguez
- Michelle Ellison
- Inji FAYEZ